

1956. 4. 22. 창립
(교회창립주일 4월 넷째주)
2025.10.26.(제3725)

아현중앙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9길 11(북아현동) (03773)
·Tel. 363-1452 ·Fax. 393-8148
·목사관. 717-2050, 365-2051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신앙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선한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제게 선한 마음을 주소서.

비록 보상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늘 선을 행할 마음을 주소서.

다만 선을 행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비치게 하시고

똑같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처럼, 저 또한

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선을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여, 아버지께서 사랑에서 온전하심같이

저 또한 저의 사랑에서 온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는 무엇보다도 선한 마음을 제일 가지고 싶습니다.

- 우찌무라 간조 -



기독교
대한감리회 아현중앙교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권오진

Senior Pastor O Jin Kwon

www.ajmc.or.kr

주일아침 예배순서

1부 7:00

2부 11:00

성령강림 후 제20주

집례: 권오진 목사

오석만 목사

손민승 목사

오르간전주 반 주 자
※ 입 레 송 . . . 524장(1,3절) . . . 다 같 이
※ 예배의부름 집 레 자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
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와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
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을 2:32)

※ 경 배 찬 송 9장 다 같 이
※ 공동의 회개기도 다 같 이

은혜로 먼저 사랑하시고 불러 주셨음을 기억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감사로 순종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 교 독 문 . . . 35번 (사편 84편) . . . 다 같 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
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
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
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
이다. 아멘.

※ 신 앙 고 백 . . . 사도신경 다 같 이

※ 영 광 송 4장 다 같 이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 도 권혁성 장로

주기도영창 635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 봉 헌 송 . . . 211장(1절) . . . 다 같 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 봉 헌 기 도 집 레 자

성도의교제 평화의 인사, 교회소식 다 같 이

성 경 봉 독 집 레 자

구 약 | 신 명 기 7:7-8

신 약 | 마 태 복 음 20:1-16

찬 양 . . . 예수로 나의 . . . 찬 양 대
구주 삼고

증 언 권오진 목사

『 계산을 멈추면 복음이 들립니다 』

결단의 찬송과 기도 다 같 이

※ 복 의 선 언 담임목사

※ 후 주 반 주 자

※ 표에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찬 양 예 배

서울연회 대기도회 오후 3시 금란교회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요엘 1:14

다음 주 : 총남선교회 수련회

젊은이예배 서울연회 대기도회

지난 주 통계

예 배		교 회 학 교	
주 일 1 부 예 배	40	영 아 부	13
주 일 2 부 예 배	290	유 치 부	30
주일실시간방송예배	40	유 초 등 부	24
오 후 찬 양 예 배	80	중 · 고 등 부	17
수 요 성 서 연 구	37	청 년 부	14
수요일실시간방송예배	11	주 일 성 서 연 구	15
금 요 성 령 집 회	66	예 수 소 망 반	30
합 계	564	합 계	143

현 금			
주 일 현 금	1,746,000	생 일 현 금	250,000
교회학교현금	185,350	장 학 현 금	250,000
월 정 현 금	1,770,000	선 교 현 금	1,520,000
십 일 조	7,180,000	속 회 현 금	589,000
감 사 현 금	1,690,000	특 별 현 금	300,000
합계 15,480,350원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중예배당

수요성서연구

10월 29일(수) 10:30, 송호준 전도사

교회학교 장년부 모임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8:10

월 - 화 열왕기하 강해
손민승 목사

어?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8과

주일성서연구
“건강한 교회 세우기” 예수소망반

수 - 목 출애굽기 강해
권오진 목사

본문 : 열왕기상 11장 26-40절 외

장재호 목사 박지연 전도사

금 - 토 에베소서 강해
오석만 목사

- 금 주 기 도 : 제 10 여선교회
- 다음주기도 : 서대문지방 사경회

대회의실 중예배당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1 부 예 배	주 일 오전 7:00	대 예 배 당
2 부 예 배	주 일 오전 11:00	대 예 배 당
주 일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2:00	대 예 배 당
새 벽 기 도 회	월-토 오전 5:30	중 예 배 당
수 요 성 서 연 구	수요일 오전 10:30	중 예 배 당
금 요 성 령 집 회	금요일 오후 8:00	중 예 배 당
장 년 부	주 일 오전 10:00	대 회 의 실
영 아 부	주 일 오전 11:00	영 아 부 실
유 치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치 부 실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초 등 부 실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중 예 배 당
젊 은 이 예 배	주 일 오후 2:00	중 예 배 당
예 수 소 망 반	주 일 오전 8:10	중 예 배 당
속 회	금요일 각 속회별로	소 그 립 실

10월 예배봉사인원

구 분	1부	2부
헌금위원	김유임 윤희열	정현호 최미숙 안현수 심수현 송대현
안내위원	윤희열	송명희 홍성민
강단헌화	(송재용 홍영기) 홍윤기	
수납위원	김동수 심영관	
통계위원	이평식 조규성 김기석	김명훈

지난 주일 증언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구약 신명기 26:17-19
신약 마태복음 13:44

설교 : 권오진 목사

마태복음 13장44절은 예수님의 여러 천국의 비유 중 하나입니다. 한절의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법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천국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의 방법을 들어 천국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천국의 비유 말씀 한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보통 이 비유를 해석할 때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으로 이해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지요. 누군가가 그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사람은 크리스찬이 되겠지요. 그는 기뻐하고 돌아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삽니다. 이것은 곧 천국을 획득한 것, 곧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질문이 생겼습니다. 천국이라는 보화를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사기 위해 모든 소유를 팔았다면 결국 구원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모두 일곱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비유를 포함해서 마지막 3가지 비유를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나 물고기를 선별하는 어부의 비유 모두 그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45-46절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

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47-50절은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만일 이 두 비유 속 주체를 하나님 혹은 예수님으로 읽을 수 있다면 이 보화 비유의 주체 역시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천국은 ~ 같으니’라는 ‘호모이오스’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의 like(~과 같은)입니다. 호모이오스는 아람어의 ‘담야’(damya)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헬라어가 아닌 아람어를 사용하셔서 ‘담야’하신 것은 어떤 한 단어를 지칭하신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전체 문장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과 같으니라’는 말은, ‘천국은 ~한 상황 혹은 이야기와 같다’는 뜻이 됩니다. ‘호모이오스’의 이 아람어적 용법을 살리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상황과도 같다. 어떤 밭에 아주 귀한 보물상자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 보물상자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통째로 사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내 자신으로 읽으면 행위 구원이 되지만, 그 주체를 예수님으로 읽으면 이 비유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천국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밭에 감추어져 있던 나를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발견한 후 다시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나를 사셨습니다.”

주체를 예수님으로 읽으면 예수님은 세가지 행동을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1.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심

보화가 바로 나 자신이라면 나는 왜 밭 속에 숨겨져 있을까요. 여기 ‘밭’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죄, 어둠의 권세, 열등감, 낮은 자존감, 세상의 야망 등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화가 보화로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발견하다’는 원문에 ‘휴리스코’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단어가 강조되어 사용되어진 복음서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역시 예수님의 비유 말씀으로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발견한 목자의 기쁨, 잃어버린 한 동전을 발견한 여인의 기쁨, 그리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을 다시 발견한 아버지의 기쁨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발견함(휴리스코)의 기쁨입니다.

2. 다시 숨겨 두심

왜 예수님은 보화를 감추고 다시 숨겨 두셨을까요. 우선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발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발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합부로 외지인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보화를 차지할 수 있는 길은 발 전체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값을 치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루기 위해, 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값을 치루기 전까지 그 보화를 숨겨두신 것입니다.

이 숨겨둠에 대해 묵상하다가 고린도전서 2장 6-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지혜(보화를 소유삼으실 계획)를 알리셨다면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보화를 얻기 위한 값을 치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보화를 다시 숨겨두신 것은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3.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심

예수님은 나를 사기 위해 모든 소유를 다 파셨습니다.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루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본문의 ‘사다’는 원문에 아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값을 치루다’라는 뜻이지만, ‘구원하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는 은혜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값비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구매 행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약의 세굴라

이 보화와 아주 흡사한 단어가 신명기 본문 26장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여기 ‘보배로운 백성’이 히브리어 원문에 세굴라(segula)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굴라는 소유물 중에서도 가

장 귀하고 가치있는 소유(Special possession)를 의미합니다.

이 세굴라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은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키셔서 새로운 정체성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본래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매우 가치있는 보화였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 노예생활이라는 밭에 감추어 보이지 않던 보화를 다시 하나님이 발견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우상숭배하고 계속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들을 참아내시며 하나님이 40년동안 하신 일은 노예근성에 찌들어 있던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나의 세굴라다.’ 반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런 의미에서 애굽 탈출기이자 애굽 적출기이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수많은 보화들을 찾아내신 이야기가 넘쳐 납니다. 스스로를 흙수저라 부르며 포도주 틀 속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이라는 보화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섯번이나 깨어진 결혼생활로 무너져버린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보화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를 새롭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등감으로 인해 돈에 미쳐살던 삭개오라는 보화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도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흙 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흙 속에 숨겨진 보화를 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실패자라, 무능한 자라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꿀만큼 소중한 보화요 세굴라로 바라보십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저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신명기의 세굴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트리나 폴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이야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줄무늬 애벌레는 수많은 애벌레가 서로 밟고 올라가는 거대한 ‘애벌레 기둥’에 합류합니다. 그는 꼭대기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듭니다. 기둥 중간쯤에서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를 만납니다. 그들은 함께 기둥에서 내려와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사랑을 키웁니다. 그러나 줄무늬 애벌레는 다시 꼭대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노랑 애벌레를 떠나 홀로 재등반을 시작합니다. 혼자 남은 노랑 애벌레는 땅 밑에서 늙은 애벌레와의 만남을 통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나비가 되는 것임을 깨닫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치를 만들고 드디어 나비가 됩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마침내 꼭대기에 도달하지만, 그곳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다른 기둥뿐이라는 허무한 진실에 절망합니다. 그때 나비가 된 노랑 애벌레가 날아와 그에게 나비의 정체성과 세상 모든 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나비의 삶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애벌레가 오르던 애벌레 기둥을 우리도 정신없이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비인 것도 모른 채 그저 다른 애벌레가 하는 것처럼,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발에 감추인 보화라고. 나의 세굴라라고. 세상에 가려져, 죄와 허물로 가려져, 정신없이 너를 몰아붙이는 경쟁사회 속에 가려져, 실패와 열등감에 가려져 다른 사람은 너를 바로 보지 못하고 네 자신마저 네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안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발견하고 모든 값을 치루고 너를 샀다고,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3가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중한 보화요 세굴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월감이나 열등감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두가지는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내 존재의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세상의 발에 파묻히지 마십시오. 언제나 고귀한 보화로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 하나님의 보화요 세굴라로서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세굴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본문 중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의 명품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내다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각양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굴라로서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 아직도 발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세상 발에 가리워져 있는 보화들이 우리 가정, 직장, 학교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자신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화임을 알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VIP 카드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VIP 기도 제목을 받아 읽어보았습니다. 그 카드가 저에게는 종이의 무게가 아닌 생명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로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그들에게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너는 보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굴라라는 것입니다. 보석은 밝혀도 보석입니다. 발에 감추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 보석을 주님께서 찾으셨고 모든 생명을 다 바쳐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화로, 하나님의 세굴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보화로 값주고 사신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담대히 일어서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 일 조 헌 금 (권오진 조고은) (이선균 차경연) (송재용 홍영기) (안홍순 양경화) (이평식 김영숙) (이한표 김순영) (조순형 백문희) (황한규 유경희) (김경행 전차월) (김동수 전순남) (김상길 정윤희) (김선욱 구용연) (김수녕 최정애) 김진숙 서성옥 송동현 오금복 유선희 이연순 이윤선 이정분 이지혜B 이한나 이호순 (정현호 송미숙) 추화순

월 정 헌 금 송숙희 김도현 김성자 (김의겸 여혜순) (김종근 이연석) (박상근 차용분) (송성범 최명애) 신상임 윤영화 이인숙A (정성규 심성희) (최은규 장미자) 홍연채 홍윤기

감 사 헌 금

손운산 : 주님의 은혜 많이 많이 감사드립니다.

(김준수 최희성) : 목사님의 부임심방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기순 :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도 건강하게 생일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박범택 윤옥희) :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강정희A :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 손들 믿음의 삶과 영육의 건강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세요. 이 백성이, 특히 정치인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고광섭 :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감사드립니다.

(권호진 정장미 온유 소유) :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진, 장미, 온유, 소유의 미래를 책임져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김동수 전순남) : 은혜로운 심방에 감사드립니다.

(김명중 장계순)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정선 :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김진숙 :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영식 정명자)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송주영 : 모든 식구들 건강 주심과 복된 일 할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주심 감사합니다.

신경희 : 새로운 손녀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고 튼튼하게 자라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혜순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유무성 박용래) : 여행 중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윤순례 : 주님, 목사님의 심방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윤영화 : 목사님, 심방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순희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정분 : 자녀들이 서로 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차정옥 : 에베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영섭 :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최은규 장미자) :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최정애 : 주님, 부임심방을 은혜롭게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 명 :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무 명 :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 일 헌 금 권혁성 김도현 서정식 (정성규 심성희)

장 학 헌 금 (김준수 최희성) (김동수 전순남)

선 교 헌 금 오해리 총여선교회(태화샘솟는집 선교동역교회 위클리프)

특 별 헌 금 김미광 (송재용 홍영기) (조순형 백문희) 홍윤기

성도의 교제

■ 교회소식

- **주일찬양예배** : 서울연회 대기도회로 오후 3시, 금란교회에서 있으며, 교회버스가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 **VIP 기도 카드** :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싶은 VIP(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카드를 작성 하셔서 2, 3층 안내석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초등부 학부모 설명회** :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에 유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 **금주 부임심방** : 양용자 김정자 (김치년 홍주연) (노복순 강연희) (김풍옥 김정현) 신상임
- **총남선교회 수련회** : 11월 2일(주일) 오후 2시, 대예배당에서 있으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주제 : 이 시대의 제자도, 강사 : 조셉 선교사)
- **제45회 서대문지방 평신도성경학교** : 11월 3일(월) ~ 5일(수), 아현교회에서 있으며, 3층 안내석에서 수료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주제 :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강사 : 현재국 목사(강서제일교회 담임), 오전반 오전 9시 30분 ~ 오후 1시 / 저녁반 월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특강 :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호산나 찬양대 대원모집 및 성탄절 칸타타** :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류준혁 집사 (010-8905-49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수감사절 감사노트** : 예배 후 한 부씩 받아 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임안내

- **여선교회 월례기도회** :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중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여선교회 회장단회의** : 29일(수) 오후 12시 20분,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 **2025년 한국 엠마오 공동체 게더링** : 30일(목) 오후 6시 선한목자교회 비전센터 2층 두기교실에서 있으며, 교회에서 4시 50분에 출발합니다.
- **여성연합속회** : 31일(금) 오전 10시 30분, 대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원 로 목 사** 윤병상 백구영 손운산 이선균
- **부 담 임 목 사** 손민승 오석만
- **수 련 목 회 자** 송호준
- **전 도 사** 박지연
- **교 육 전 도 사** 김웅래 김소영

- **청장년회, 남선교회 단합대회(가족동반)** : 11월 1일(토) 오후 12시 30분, 고양 ZD풋살장(덕양구 서오릉로 739-60)에서 있으며, 교회에서 오전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문의 : 박범택 장로 010-2702-5966)

■ 교우동정

- **감사** : 유치부 야외예배를 후원해 주신 김미광, 이평식 장로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 : 국내성지순례를 후원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온라인 헌금

019601-04-344912 (국민은행, 아현중앙교회)

헌금 내용(헌금자명+헌금종류)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가족

-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안내석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 11월 중 행사

- **여성연합속회** : 14일(금), 28일(금) 오전 10시 30분
- **추수감사절 말씀축제** : 16일(주일) - 19일(수) 오후 7시
- **당회준비 기획위원회** : 20일(목) 오후 6시

■ 금요성령집회 (10월 31일)

찬	양	익	투	스	찬	양	단
설	교	권	오	진	목	사	

■ 주일아침예배 (11월 2일)

대 표 기 도	김 기 석 장로
성 경 봉 독	장 성 욱 집사

■ 주방봉사

- 이번주 : 5남선교회와 청장년회
- 다음주 : 동구 1, 2지역

- **소 속 목 사** 김재성 장재호 김희진 남기정 정영준
- **성 가 지 휘** 김정희 김병일 한숙이
- **반 주** 최소연 이진경 박경아 황영진 김수빈